



※ 스포일러 주의



오민혁 단편선 화점

저자 오민혁
출판 거북이북스
발매 2020.02.06.

작가의 개인전에 다녀온 기분

2015-2016 사이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던 단편 5편에 <우주어 宇宙魚>라는 단편 하나 추가한 책이다
글 작성 시점 기준 <우주어 宇宙魚> 외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전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니 봐도 좋을 듯
<https://comic.naver.com/webtoon/list?titleId=667010>



오민혁 단편선

한 명의 젊은 작가가 그리는,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따뜻한 세계! 짧지만...

comic.naver.com

흑색과 백색을 주로 사용하고

'작가의 말'로 시작해서 단편 6편, <우주어 宇宙魚>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그림 한 점으로 마치는 책 구성이 앞서 말했듯 마치 작가의 개인전에 온 듯한 경험을 주어 좋았다

우리는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마주합니다.
어떤 감정은 사소해서 쉽게 잊히지만, 어떤 감정은 존재를 뒤흔들고
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.

<오민혁 단편선 화점>은 저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, 저를 뒤흔든 감정을
표현하기 위해 시도한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추상적인
감정은 독자 여러분의 공감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와 의미를 얻게 됩니다.

저에게 그 의미란,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.
바다 위의 섬들이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
연결되어 있다는 말처럼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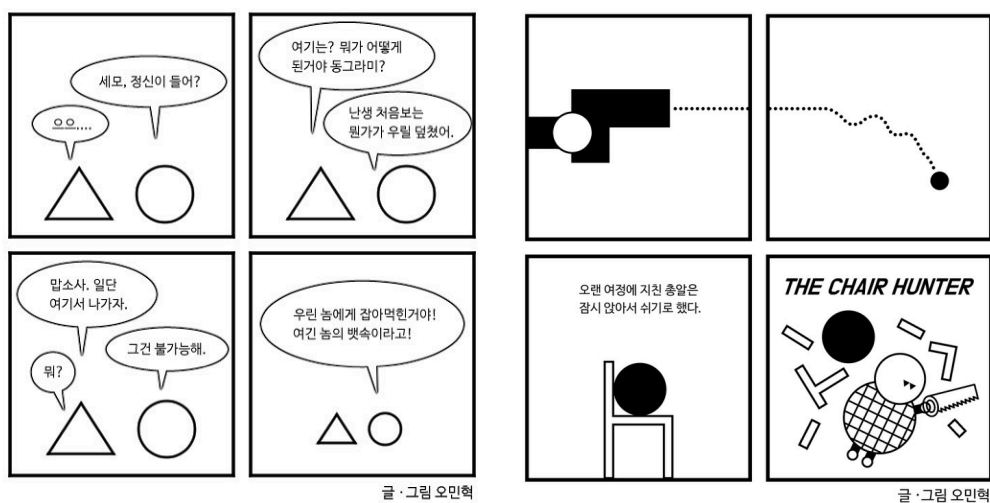
결국 이러한 시도는 제 나름대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며,
오직 독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<오민혁 단편선 화점>이 이렇게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.

이 자리를 빌어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작가의 말

웹툰이 연재되던 당시 이 만화들을 인상 깊게 읽었다
다시 읽어도 재밌었다
차기작 없이 사라진 작가 근황을 찾아 인스타에서 4컷만화 발견하고 읽었던 기억이 난다
그때 책 출판 소식을 인스타에서 접했던 것 같긴 한데, 당시에는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



출처: 오민혁 작가 인스타([링크](#))

만화 초판이 2020년에서야 나온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
좀 더 일찍 나왔다면 더 많이 읽히고 작가분이 더 많이 유명해지셨을 텐데
근데 인스타 보니 이 책의 단편 <롤렛>으로 뮤지컬도 나오고, 잘 살고 계신 것 같다
나는 내 걱정이나 하면 된다

단편별로 감상을 남겨보았다

<화점>

다 떠나서 이 작가, 바둑 잘 모른다

바둑에서 불가능한 바둑알 배열(11p 등),

나름 순서를 맞춘 것 같으면서도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바둑 용어의 나열(36-37p) 등

한국기원 인터뷰 찾아보니 맞는 것 같다

http://m.baduk.or.kr/news/B03_view.asp?news_no=107



하지만 소재로서 바둑을 훌륭하게 사용했다

이기는 게 전부일까?

많이들 바둑을 인생에 빗대곤 한다

나도 애용하고 있고

<달리와 살바도르>

첫 감상 때 나름 충격이었던 기억이 난다

살바도르 달리,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이름인데

여기서 캐릭터 이름을 따온 이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다

이 만화가 전하는 교훈은 아닌 것 같지만

항상 남도 의심하고 나도 의심하자

절대란 없다니까?

<아이스크림>

방금 조 바이든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 보다가

오랜만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

슈퍼콘이 무슨 2100원이나 하더라

초반부에 인상 깊은 연출이 많았다

42서울 하고 난 뒤, 42는 언제나 눈에 밝힌다(99p 등)

아이스크림이 사르르 녹는다는 걸 흘러내리는 그림체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(101p)

순사가 등장했을 때 하늘에 일장기가 떠오르는 듯한 해를 드러냈다가

사라졌을 때는 구름에 해를 가리는 연출도 좋고(102p)

둘의 운명을 가리키는 듯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구름 연출도 좋다(103p)

위 단편들 세 개에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

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

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이 나왔지

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고, 그 이유는 무엇일까?

단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

두 문단만에 반복한다

사실 인간은 매사에 합리적일지도 모른다

단지 '뭇이 중헌디'에 제각기 다르게 답할 뿐

가치는 사람마다 달리 느끼는 거니까~

내가 아이스크림에 매긴 것처럼

<롤렛>

레드벨벳 노래도 좋지만

시유의 '러시안롤렛'이 나에겐 조금 더 근본이다

노래 좋으니까 궁금하시면 한 번 들어보시길

이번에도 인상 깊은 연출 몇 개 정리해 보았다

도일이 음식 먹고 쓰러지는 걸 컷 분할로 표현한 점(136p)

창문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촛불이 켜지는 것과 총이 발사된 것을 표현한 점(178p, 184p)

반전을 표현하는 동전 연출(190p)

창과 창 사이 절묘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(아마도) 포우(193p)

동전 던지기에서 <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>의 안톤 쉬거가 떠오르기도 하고

<유주얼 서스펙트>의 절름발이가 떠오르기도 하고

역시 혈연이라도 도박사와는 도박하는 게 아니다

그냥 도박은 할 게 못 된다

단편 영화 보는 느낌이었는데 역시나

뮤지컬로 나왔다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보고 싶다

<매듭>

알베르 카뮈의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단편

부끄럽게도 이 만화 처음 볼 때 카뮈가 누군지도 몰랐다

지금도 이름만 아는 정도다

우주탐사선 고르듀스호의 고르듀스는 고르디우스를 연상케 한다

알렉산드로스가 단칼에 끊어버렸다는 그 매듭

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떠오르게 한다

예나 지금이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편이다

덧글에서 준이 리나와 만나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

매듭균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해가 좀 됐다

매듭균이 필요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

다른 이와 맺는 관계에서 결여를 많이 느낀다

매듭균을 쓰는 건 고독이 죄의식을 삼켜서 그런 거겠지

어찌 됐든 간에 타자 입장에서선 비겁한 일이다

결국 받아들이고 직면해야 해결할 수 있다

<우주어 宇宙魚>

'원한다', '좋다' 대신 '마렵다', '맛있다'를 쓰는 mim이 좋다

이게 공감각이지

특히 '맛있다'가 좋다

내가 요리와 음식을 무척 좋아하기도 하고

아이가 느끼는 무서움을 떨리는 그림체로 표현하는 게 맛있다(289p)

뺨을 맞는 입장에서 표현한 거 맛있다(317p)

뒤늦게 까만 인간 동료 게브가?가 뒤를 밟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, 컷을 돌려보면 뒤를 밟는 모습이 보이는 게 맛있다(319p)

전율이 일 정도는 아니어도

로켓 카운트다운 장면의 영화 같은 연출에 감탄했다

마치 영화 <오펜하이머>의 트리니티 카운트다운 장면을 보는 듯했다

아이의 순수함을 어른이 된 지금 어떻게 완벽히 떠올릴 수 있을까

아이 먼저 보낸 부모 슬픔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

기억하지 못하거나 겪지 못했다면 경험자를 관찰하고 상상하는 수밖에 없는데

기억력이 좋으신 건가 감정 이입을 잘 하시는 건가 상상을 잘 하시는 건가

아이와 부모에게서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다

토비는 작중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

행동에서 그 감정이 전해지는 듯하다

우주 물고기가 된 조이가 전하는 우주어 宇宙語

가능하다면 책으로 많이들 읽어봤으면 좋겠다

복잡하게 해석하려 하기 보다

작가의 말마따나 단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공감해 보면 된다

나는 일부러 해석을 따로 안 찾아봤다

아무튼 잘 봤다

오래전부터 장편 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 나오려나 모르겠다

찾아보니 배민에서 만든 '만화경' 앱 통해 옴니버스 단편 5개 무료로 볼 수 있길래 봤다

책의 단편보다는 인스타 4컷만화에 가까운 만화지만, 작가의 다른 만화가 궁금하다면 찾아봐도 좋을 듯
어쨌든 만화는

